조계사, 감사와 천도의 '국화수륙대재'

10월 19일 중양절 맞아 봉행
고혼 천도 · 중생 평안 발원



서울 조계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유주무주 고혼 천도와 중생 평안을 발원했다.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0월 19일 '불기 2570년 감사와 천도를 위한 중양절 국화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불교 전통 의례인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넋을 천도해 이고득락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이날 수륙대재는 일주문에서 고혼을 모시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특설무대로 영가를 이운해 영가의 번뇌와 업을 씻는 관욕, 불법의 길을 일깨우는 대령,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해 영가의 명복을 비는 관음시식, 위패를 태워보내는 봉송·소전 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국화수륙대재 감사 헌공 발원문을 통해 시방세계 모든 생명이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원했다. 일체 영가를 향해서도 "사바세계 고통받는 모든 중생 다 함께 가피력에 의지해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자재 해탈을 얻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주지 담화 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과일과 곡식을 올려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발원한다"며 "오늘 수륙대재를 성대하고 활기차게, 여법하게 봉행한 만큼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털어내 남은 올해도 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오늘 조계사 국화수륙대재를 통해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생전예수재 회향…"불도 이루길"

10월 18~19일, 회향식 거행
학술 연구 · 전승 교육 등 매진



서울 봉은사가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닦고 참회와 성찰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 의례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회향하며 일체 중생 모두가 삼독심에서 벗어나 불도를 이루길 간절히 기원했다.

봉은사는 10월 18일과 1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식'을 거행했다. 생전예수재의 의례와 작법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고, 봉은사 생전예수재 어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종장)과 생전예수재 보존회 어산단 스님들이 주도했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 이사장 원명 스님은 "의례의 원형 보존을 넘어 학술 연구와 기록화, 전승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학술교류와 문화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 가치를 알리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부대중은 "인류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보살행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한 재를 미리 닦으며 지난 삶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는 불교 전통의례다. 봉은사는 1993년부터 신행운동으로 생전예수재를 이어왔으며, 2016년 원명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윤달에 한해 간소히 설행되던 예수재를 전통의례 그대로 복원했다. 2017년에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와 전통 원형 복원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2025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김내영 기자

용주사 국행 무차회 "일체 중생에 자비를"

10월 18일, '천년의 아우름' 주제
황실재례 재현…라오스 불상 봉안



정조대왕의 효심을 잇는 효찰대본산 화성 용주사에서 모든 중생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고 자비와 공덕을 전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천년의 아우름, 국행 무차회(無遮會)'를 봉행했다.

무차회는 고혼을 모셔오는 시련의식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이준 황손이 왕의 교지를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에게 전달하고 영단에 공양물을 올리는 황실재례가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문에서 "오늘 무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성효 스님은 "멀리 보고 무한히 베풀자. 그밖에 좋은 일 없으니 알아라. 이것 무차가 전부이니, 그 끝에 내 모습을 보자"는 경구로 '무차'의 의미를 전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에 담긴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전승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용주사는 라오스 옹뜨사원 주지 푸마봉 푸앙빠서엇 스님(라오스불교연합회 부회장) 등 라오스 방문단과 불상 봉안 의식을 봉행했다. 이어 국행 무차회 개최를 위해 힘쓴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전달했다.

'용주사 국행 무차회'는 용주사가 고려 광종 22년(971년)부터 이어진 갈양사(현 용주사)의 수륙도량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 정조가 용주사에서 무차회를 주최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봉행하는 불교의례다. 이현희 기자

수덕사, 음악으로 마음 보듬다

10월 19일, 제4회 산사음악회
수덕사 · 효원문화재단 공동 주최



천년고찰 수덕사에 울려 퍼진 음악이 불자와 지역민의 마음을 이었다.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에 관객들은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자비와 희망의 울림을 나눴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재단법인 효원문화재단은 10월 19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이 함께하는 '제4회 수덕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가슴이 후끈해집니다"라는 격려의 말로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천년 도량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이 바쁜 일상 속 번뇌와 시름을 털어내고 지친 마음에 평온과 치유를 선사하는 맑은 감로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무대는 제7교구 연합합창단이 장식했다. 수덕사 우담바라합창단과 서산 서광사 룸비니합창단, 당진 보덕사 관음합창단, 당진 서원사 연화합창단이 함께한 제7교구 연합합창단은 홍은지 지휘자와 박은영 반주자의 협연에 맞춰 '무상'과 '잊혀진 계절'을 선보였다.

이어 유도현과 강리연, 신나, 강민주, 박애리, 임창정, 홍지윤, 박지현, 에일리 등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예산 출신 국악 트로트 가수 유도현의 출연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로 의미를 더했다.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 열린 이날 음악회는 음성공양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수행의 도량과 지역사회를 잇는 문화의 장이 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은해사, 호국정신 잇는 은빛문화제

10월 17일 의승 · 의병 추모재
전시 · 음악회 등 지역민 화합



개산 1217주년을 맞은 은해사가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개산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17~18일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여섯 번째 이야기'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희생된 의승·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모재가 봉행됐다.

주지 성로 스님은 봉행사에서 "선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과 자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전통사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모재에 앞서 육화원에서는 '은해사 임진왜란 최초의 의승군 승리 특별전시'도 개막했다. 당시 사용한 무기와 승전 이후 조선 왕실에서 하사한 물품 등에 관한 자료도 선보였다.

저녁에는 영천성 수복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록 콘서트 '극락도 락'이 열렸다. 육중완밴드와 김기태밴드, 손진욱밴드가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개산 1217주년 법요식이 봉행됐다. 성로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라 해철 국사의 개산 원력을 되새기고 법맥과 수행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은빛음악회가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행사장에서는 차 명상 쉼터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물 판매 장터 등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고운사, 산불 아픔 딛고 문화제 재개

제4회 고운문화제 · 사찰음식축제
나무 100그루 심고 맨발걷기 대회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가 2년 만에 문화제를 재개하고 자연과 문화유산의 회복,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10월 17~18일 '제4회 고운문화제 및 고운사찰음식축제'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열렸다. 이어 퀴즈쇼와 비보이 공연,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연구교수 초청 토크콘서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운음악회에서는 경북도립국악단의 연주와 가수 최예림·박서진·정수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고운사찰음식축제에서는 고운사 소속 20개 말사가 정성껏 마련한 사찰음식 4500명분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부석사와 청량사, 고운사, 봉정사, 초암사, 영주포교당, 관음사, 대곡사 등 각 사찰은 전통과 특색을 담은 음식을 선보이며 사찰음식에 깃든 공양과 나눔의 정신을 전했다.

스님과의 차담과 명상, 환경체험, 지역 상생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도 운영돼 사찰문화와 지역사회를 잇는 장이 됐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산불 피해 숲의 회복을 기원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다. 수사해당화 등 나무 100그루를 심으며 자연 회복의 염원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고운천년숲길 맨발걷기 대회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힐링콘서트, 불교합창단과 오카리나 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쌍계사, 생명 살리고 자비 나누다

10월 18일, 자비방생대법회
남해군에 기부금 1000만원



쌍계총림 쌍계사가 고산 대선사의 방생 정신을 계승하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와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는 10월 18일 쌍계사에서 '제41회 본·말사 연합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회주 영담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방생은 단순히 살생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비행"임을 강조하며,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개회사에서 고산 대선사의 원력으로 이어온 방생법회의 전통을 계승해 생명 존중과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쌍계총림의 수행 가풍 계승과 교구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부대중은 고산 대선사의 생전 영상 법문을 통해 불살생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지현 스님과 이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은 꿩을 지리산 자락으로 날려 보내며 일체 중생의 안녕과 평화를 발원했다. 신도들은 영상으로 방생 장면을 지켜보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동참했다.

이날 쌍계사 본·말사연합회는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남해군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개산대재…"붓다로 살아가자"

10월 17일, 제1427주년 개산대재
역대조사 다례재와 개산대법회



천년 미륵신앙의 숨결이 깃든 모악산 금산사 도량에 평화와 상생의 서원이 이어졌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0월 17일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427주년 모악산 금산사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법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북무형문화유산 영산작법 보존회 영산 스님, 법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의적화상, 숭제 법사, 진표 율사, 처영 대사, 혜덕 왕사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재를 시작으로 행사가 열렸다.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에서 "개산이란 단지 산문을 열고 절을 세운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며 "혼란과 고통의 시대마다 중생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희망의 길을 터놓았던 보현행원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회주 도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라며 "지금 당장 평화롭고 따뜻한 붓다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제3회 모악산 금빛가요제'가 열렸다. 개그맨 박범수의 사회로 김성훈 등 참가자들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어 송세운 명창, 트롯가수 김유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원곡 가수 김용진, 주병선, 김양 등이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열었다.

저녁 공양 후에는 금산사 도량을 연등으로 장엄하는 만등법회가 봉행됐다. 불자들은 가족의 건강과 온 세상의 평화를 발원하며 등불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서 반려견과 선명상해요"

10월 19일, 2026 선명상 축제
도그요가 · 수의사 강연도 진행



"반려견이 편안하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10월 17일 '2026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남양주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봉선사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국민행복 치유 프로젝트인 선명상을 반려문화와 연결해 의미를 더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호흡하고 걷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오전에는 주지 호산 스님의 지도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스님은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과 걸으며 수행하는 행선의 뜻을 설명하고 좌선 체험을 이끌었다. 이어 반려견과 함께 경내를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반려인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의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윤정원 한국애견요가협회장의 '최상의 행복을 찾는 도그요가 테라피'와 최인영 수의사의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반려생활 건강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 힐링 펫타로와 반려견 바디 데코, 반려견을 위한 염주 목걸이 만들기 체험도 상설 운영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